

가르치는 교회 ■ 전파하는 교회 ■ 봉사하는 교회

표어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1. 영적부흥을 통해 예수의 제자가 되어,
2.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3. 21세기를 감당하는 일꾼을 키워내고,
4. 지역사회를 인도하고,
5. 세계선교에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월 행사 안내

6월 16일(화)
성인 알파 수료식

6월 18일(목)
파더와이즈 마더와이즈 자유 수료식

6월 21일(주일)
정기제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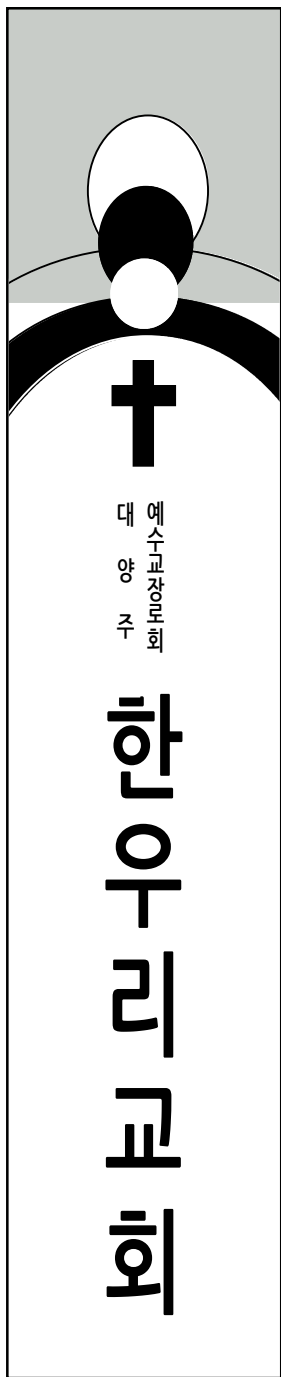
6월 25(목), 26(금)
새싹학교 미니 올림픽

6월 28일(주일)
성찬주일

담임목사 남 우 택 (Stephen W. T. NAM)

59 View Rd. Glenfield, Auckland, 442-1457

Hanouri Korean Presbyterian Church



교회 소식

교회알림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 한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주일 2부(10시) 예배시 조이홀 이용은
영, 유아와 함께 한 부모님들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3. 오늘 주일(14일) 1-4부 예배는 원천희
선교사께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바누아투 산토 부족선교)
4. 정기제직회가 다음 주일(21일) 1시30분에
조이홀에서 있습니다.
5. 3040 디아코니아 모임입니다!
주제: 헤쳐모여!!!
일시: 6월 28일(주일) 1시 40분
장소: 느헤미야 은혜홀
6. 우리 교회가 국내외 총회들과 협력하여
미래 목회 및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준비하는 '미래목회 솔루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사 내용: 현재 교회 현실 진단 및 미래
목회 방향 수립을 위한 설문
참여 대상: 한우리교회 모든 성도
참여 방법: QR Code를 스캔 후
온라인 설문 참여
7. 교역자 동정;
김경재 목사가 부임합니다.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 교육위원회: 7월 12일(주일) 1시 30분
바누아투 단기선교 물품 도네이션 모집
- 바누아투 단기선교: 7월 2일-12일
- 부시 어린이 200여명의 연합 캠프용으로,
캠프 마지막 날에 달란트 시장에 쓸
물건들이며, 부시 선교사들이 산에 올라갈
때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 도네이션 물품들은 21일까지 친교실
스크린 뒤쪽 지정된 장소에 놓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구류: 색연필, 크레파스, 연필, 지우개,
문구용가위, 풀, 볼펜, 퍼머넌트마커,
줄있는공책 (얇은 싸이펜, 샤프펜슬 제외)
- 주방용품: 스푼, 플라스틱접시, 후라이팬,
주방용칼, 작은보온병, 작은물병
(일회용품, 유리나 사기용품 제외)
- 장난감: 축구/배구공, 작은 놀이용공,
배구네트, 장난감 (크기가 작은 장난감 제외)
- 의류, 신발 여름용옷, 쪼리, 장화, 양말,
레깅스, 사이즈95이상 셔츠 (밝은색제외)
- 생필품: 수건, 따뜻한 얇은이불, 손전등,
부채, 칫솔, 가방(백팩이나 에코백)
(핸드백제외)
- 문의: 이정석 집사 021 868 075

교우동정

- 위로
임유성 집사가 모친상을 당하였습니다.
유가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우를 위한 진료와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를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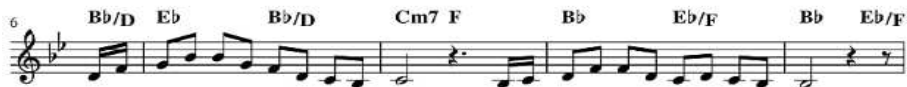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이
 내가 이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지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이 당연 한 것 아니라는 혜였 소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 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 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이 당연 한 것 아니라는 혜였 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이



모든 것이 은 혜 은 혜 은 혜 한 없는- 은 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 소

목장소식

초원	목장이름	목자	연락처	초원	목장이름	목자	연락처
코람데오	1 로댐	김승기	21575899	리	37 BASIC	박태성	278888161
	2 이집트	박진석	21356818		38 노스쇼어	이승훈	21599891
	3 가나	김택진	2102339858		39 통가	정문주	278888989
	4 쓸라 피데	허광옥	274832352		40 벨엘	신규식	21417756
	5 중국무지개	이성열	274573211		41 Kia Ora	이경현	2102750654
	6 이리안자아쁘데나	채금희	21569056		42 제주한라	이상용	21821190
약속	7 양의문	조종면	275325423	참빛	43 인도원달라	안병우	2108491788
	8 예멘	형재홍	2102945114		44 Acts 29	양은창	21538709
	9 베티아	이재용	210480543		45 선한사마리아인	권효남	212627967
	10 직가 바울	이군식	21779958		46 베다니	이강용	21977942
	11 일본	손동옥	212043531		47 섬나 호치민	나중엽	21386202
	12 캄보디아늘푸른	고현숙	21996653		48 가버나움	이석은	211821073
성결	13 모스코	노희영	274308322	온유	49 천국 나그네	강성배	211069821
	14 북한개성	주윤태	2102847491		50 느헤미야	이정석	21868075
	15 솔로몬제도	송현호	2102954933		51 이레	이의섭	210497628
	16 감비아	김규영	22029838		52 오타라	이준영	21410884
	17 러셀	안응진	211821185		53 브엘세바이스라엘	김태원	21677132
	18 과테말라 사랑	김휘홍	21730740		54 수단로코스	김성국	272714894
소망	19 한국 다음세대	정민혁	21630912	무지개	55 미래세대 디딤돌	장만현	210702928
	20 하얼빈푸른	김영현	211721138		56 원난	채한승	2102879202
	21 옐림	이명준	272970117		57 LA	정두련	211365151
	22 카이로스 발리	이경호	272341008		58 다비다	전복순	2102251782
	23 블라디보스톡	임종현	211989504		59 필라델피아푸른	임상규	2108661226
	24 바누아투 푸른	남성주	2102701990		60 보아스	김용태	274711446
빛	25 임마누엘싱가폴	최재인	21524896	임마누엘	61 익투스북한	박경배	211705296
	26 부르키나파소	권정호	21556934		62 헤럴 필리핀	한진호	272710948
	27 말레이 미리	임종인	275805048		63 Central 오uckland	임동민	2040026400
	28 가데스바네아	허건희	2102308976		64 드레스덴	김지석	210302829
	29 엘번	지영철	2102750720		65 태국사랑	김지연	210316041
	30 파푸아뉴기니	원재호	21473018		66 산토	조기동	2102370987
우리	31 에벤에셀	이민수	21810072	민음	67 네랄 은혜	조영아	212158936
	32 서울 빛의마을	전은호	2041616256		68 도우라안디옥	황용선	21399603
	33 월드파키스탄	손보영	21380366		69 터키오네시보로	김태성	212168531
	34 우크라이나	김형수	275622266		70 아베스	김성민	212595119
	35 낮은 울타리	주성은	2108354513		71 바나바	김종국	21654688
	36 바울 로마	오 훈	2102859399		72 키르키즈스탄	김태중	2102529797
교구	초원		교역자	73 그리스도의 향기 Lexall	심정임	2102386602	
1 교구	코람데오 약속 성결		안현수	3 교구	참빛 온유 무지개		이요한
2 교구	소망 빛 우리		이성민	4 교구	임마누엘 믿음		김진영



1. 이번주 설교 가운데 가장 도전받은 것은 무엇인가를 서로 나누어 보자.
2. 말씀을 통해 나 자신에게 적용하여 실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나누어 보자.
3.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에 대해 목장에서 실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고 정리하고 기도하자.

<p>필리핀</p>	<p>“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50년만의 최악’ 필리핀 강진 사망자 41명… 생존자 구조 총력</p>
<p>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사망자가 최소 41명, 부상자는 487명으로 늘었으며 2만 명 이상이 이재민이 됐다. 가옥 2,000여 채와 정부 시설 117개, 교량 약 20개가 피해를 입었고, 구조대는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실종자 수색과 생존자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제너럴산토스시와 사랑가니주 등에서는 건물 붕괴와 산사태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당국은 규모 6.7을 포함한 1,100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 붕괴 위험을 경고했다.</p> <p>하나님, 민다나오섬 해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필리핀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기도하오니, 생존자들의 구출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갑자기 만난 재난으로 가족을 잃은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피난처와 힘과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땅과 바다가 흔들려 뛰놀아도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환난의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주의 열심으로 필리핀을 회복하여 주옵소서(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p>	
<p>북한</p>	<p>“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의 드문 편지 공개… “모든 것을 걸고 믿음 지킨다”</p>
<p>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Open Doors)가 북한 지하교회 성도가 보낸 것으로 알려진 희귀한 편지를 공개하며,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가는 북한 기독교인들의 현실을 전했다. 오픈도어의 한 현장 사역자는 “북한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헌신적인 신자들 가운데 하나”라며 “그들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 우리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견디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가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세계 교회의 지원과 기도를 더욱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고 있다”고 전했다.</p> <p>하나님,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된 북한의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지체가 받는 고통으로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과 같이 북한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겪는 말할 수 없는 고난에 이 시간 우리도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님, 극심한 박해와 두려움 속에서도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복음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한 북한 성도들에게 복내려 주십시오. 말씀으로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그들의 믿음의 경주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한 몸 된 교회의 기도로 인해 더욱 힘을 얻어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소서(출처: 미국오픈도어 종합).</p>	
<p style="text-align: center;">기 도 문</p> <p>사랑하는 하나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강진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필리핀을 위로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 [북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북한교회를 붙들어주시고, 순수한 복음으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교우를 위해] 건강과 재정, 관계와 신분 등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